

어린이집에서의 만5세 유아의 일과 분석*

A Qualitative Study of Five-Year-Old Children's Daily Activities
at the Daycare Center*

서영희(Younghee Seo)¹⁾

임재택(Jaetack Lim)²⁾

김은주(Eunju Kim)³⁾

ABSTRACT

In order to identify the daily activities of five-year-old children in a daycare center, the 23 children in "Yellow" class at "Yellow" Daycare Center were observed for seven months. Research was informed by a qualitative approach. Findings were that : children were rigidly attached to a time frame built into their daily classroom schedule, arranged by time and classroom space allotted to each unit. The meaning to the children was to be found in their "busyness;" they were very busy finalizing activities imposed by teachers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They spent most of their time moving about from one space to another within the classroom, and they played with their mostly artificial toys under rules set by the teacher.

Key Words : 일과(daily activities), 유아(young children), 어린이집(daycare center).

I. 서 론

현대 사회는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핵가족화 및 결혼 가정의 증가, 전통적인 가족 기능인 자녀양육 기능의 약화, 취업여성

의 증가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시대적 여건의 변화는 아동을 둘러싼 가정 및 지역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오늘날 보육에 대한 수요와 요구의 양적 혹은 질적의 변화와 증대(이연승·조미나, 2005; 정선영, 2002; 홍금자·이혜영, 2008)를 가

* 이 논문은 2008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임.

¹⁾ 동부산대학 사회복지과 전임강사

²⁾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³⁾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 Eunju Kim,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San 30, JangJin-Dong, Gumeong-gu, Busan 609-735, Korea
E-mail : eunjukim@pusan.ac.kr

저오게 하였다. 특히 부모의 학력과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국가적으로도 인재양성과 여성 경제활동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유아교육은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양상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취학 전 영유아들의 보육·교육 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전체 56.8% 임을 차지하고(서문희 외, 2005) 있는 것을 살펴볼 때, 갈수록 가정의 보육 기능이 약화되어지고 과거에 비해 부모의 자녀양육의 역할이 보육시설로 이양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유아들이 유아교육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4-8시간으로 가장 많으며(64.1%), 8시간 이상 머무는 경우도 12.7%로 나타났다는 김현정의 연구(2003)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에서의 보육은 가족제도의 변화와 여성취업, 인재양성과 연관되어 앞으로 그 역할의 중요성과 기능의 다양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강문희 외, 2007).

영유아들은 가정의 친근성과 안정성으로부터 떠나 아동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구안된 환경인 보육시설에서 보육과 교육을 경험하고, 이곳에서 새로운 물리적 환경과 낯선 사람들, 지켜야할 규칙들을 접하게 된다. 따라서 영유아들의 보육시설의 일과 활동들은 개인의 개별적 삶을 매일의 테두리 속에서 조직한다는데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의 일과가 매일 매일의 반복 가능성, 그리고 시간 배분 속에서 고정되는 것이라고 볼 때(이소은·이완정, 1997), 이러한 일과는 영유아의 발달에도 누적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최근 유아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아들의 일과에 관한 연구들

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유아들의 일과 활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김현정, 2003; 이소은, 2000; 이소은·이완정, 1997)와 둘째는 유아교육기관에서 경험하는 활동에 대한 유아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이진원, 2006; Armstrong & Sugawara, 1989; Godfrey & Cemore, 2005; Wiltz & Klein, 2001)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들의 생활세계 및 교육활동의 다양한 측면을 드러내면서 유아들의 세계 인식의 기본 방식과 유아 존재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둔 연구(박지영, 2001; 서현, 2006; 유혜령, 1998, 1999; 이민정, 2002; 임성혜·손영수, 2001; 정경애, 2003) 등이 있다.

영유아들이 경험하는 일과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보육시설에서의 유아들의 일과는 시간과 공간의 경로에 따라 다양한 활동들로 매우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육시설의 일과는 영유아들이 보육시설에 등원하여 교사와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하여 교사의 계획된 하루일과에 따라 계획-활동-평가의 순서로 진행되며 하루 일과를 회상하고 마무리하고 귀가를 하는 것으로 마치게 된다. 대부분 하루일과는 집단으로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는데, 하루 일과 시작하기, 집단활동, 회상하기, 중식, 귀가지도와 같은 ‘모이기’와 자유선택활동, 활동과 활동 사이의 시간, 실외활동의 ‘흩어지기’활동으로 크게 나누어 이루어진다(이대균·송정원, 2005). 따라서 보육시설에서 영유아들이 무엇을 경험하는지를 보려면, 유아교육기관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른의 눈을 통해서 보다는 유아의 눈을 통해 관찰할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이 등원해서 귀가하는 순간까지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영유아들의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일과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양적 연구방법으로 일과를 분석하는 등 유아교육기관의 전체적인 일과를 질적 연구방법으로 접근한 연구는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유아교육기관에서 영유아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는 파악되어 있지 않다. 영유아들은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유아교육기관의 경험에 대한 영유아들의 실제적인 삶, 일과를 질적 연구방법으로 접근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영유아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 경험하는 일과들을 살펴보는 것은 유아의 발달을 이해하는데도 중요하며(Belsky, 1988; Lee, 1994), 앞으로 유아가 어떠한 존재로 성장하고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측해 보게 해줄 것이다.

Noddings(2008)는 학교교육이 아이들의 행복의 성취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기본적으로 영유아에 대한 보육은 영유아를 중심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즉, 유아교육기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 어린 영유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만5세반 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어떠한 일과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일과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질적 연구방법으로 이해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의 만5세반 유아들 23명을 선정하고, 그 학급을 7개월간 방문하여 유아들의 일과를 참여관찰하고 면담하면서 유아들의 일과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자 한다. 질적 접근을 통하여 어린이집에서의 유아들의 일과를 ‘있는 그대로’ 포착하고 그 본질을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목적인 만5세반 유아의 일과를 밝히기 위해서는 전형적인 보육시설의 만5세반 유아들을 찾아야 했다. 따라서 국가수준의 보육과정인 표준보육과정을 실행하며, 보육평가인증을 받은 5년 이상 운영되어진 보육시설 2곳을 방문하여 원장과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은 뒤 만5세반을 대상으로 예비관찰을 실시하였다. 예비관찰은 2007년 5월 14일부터 6월 8일까지 총 4주 동안 주 1회 각각 총 4회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하였다. 이 기간 동안 연구자는 연구보조자 2명과 함께 보육시설에서의 전반적인 일과의 흐름, 일과 중에 유아의 모습, 구체적인 활동들을 관찰·기록하고, 유아를 대상으로 면담을 해 봄으로써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부산시 M구에 소재하고 있는 노란어린이집(가명) 만5세 1개 학급인 노란반(가명) 유아 23명이다. 노란어린이집은 보육평가인증을 받은 법인 어린이집이며, 교직원 은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아반 4개반과 유아반 5개반으로 모두 9개 학급으로 총 원아 수는 124명이다. 노란반 유아들은 남녀 비율이 13대 10으로 대부분 재원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는 5년의 교직경력을 가지고 있는 담임교사 1명과 초임 보조교사 1명과 함께 생활한다. 대부분 어린이집 주변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승합차를 이용하여 등·하원하고, 하원시에는 사설학원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노란반 유아들은 어린이집의 보육 운영시간에 따라 오전 8시 30분부터 5시 40분까지 주로 생활하나 반일제 유아 5명을 제외한 나머지 유아들은 특별활동이 끝나는 오후 3시 30

분부터 마지막 차량운행 시간인 6시까지 만4세 반 동생들과 함께 통합되어서 함께 지내다가 귀가하였다. 그러나 가끔 학부모 및 개인사정에 따라 6시 이후에 귀가하기도 하였는데, 이때는 다른 연령 유아들과 함께 통합되어 1층 만 3세반 교실에서 당직 교사의 보육을 받으면서 개별적으로 귀가하는 모습이었다.

2. 자료 수집 방법

연구절차는 Spradley(1988)가 제안한 참여관찰의 3단계인 서술적 관찰, 집중관찰, 선별적 관찰로 나누어 진행하면서 연구의 초점을 좁혀 나갔다. 제1단계는 예비관찰 기간으로 2007년 10월 1일부터 12일까지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연구대상 기관을 총 6회 방문하여 유아들의 일과에 대한 서술관찰(narrative observation)을 하였으며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일과의 각 단위 활동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일어난 유아들의 말과 행동, 기타 사건들을 차례대로 서술하였다. 연구자는 연구보조자와 함께 비디오 녹화를 하고 현장노트 기록을 병행한 후 당일 밤이나 그 다음날 컴퓨터 한글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재정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정리된 기록들을 가지고 연구보조자와 매주 협의회를 하면서 함께 자료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자료 분석에 참여하였다.

제2단계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주 2~3회에 걸쳐 요일과 시간에 변화를 주면서 집중관찰(focused observation)을 하였다. 관찰은 유아들의 이동 동선을 따라다니며 이루어졌으며, 유아와 유아간, 유아와 교사간의 대화나 유아들의 몸짓, 표정 등에 중점을 두었다. 유아들과의 면담은 유아들의 자유로운 생각과 의미를 파악해 내려는 목적 하에 일과 진행 과정

중 특히 소모임으로 흩어져서 활동을 할 때와 자유선택활동을 할 때 이루어졌다. 면담 내용은 유아들의 일과에서의 진행하는 활동이나 느낌, 생각, 어려움, 갈등 등에 관한 것으로 이는 현장 관찰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비롯해서 유아의 관점에서 현재 보내고 있는 일과들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들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였다. 연구자는 참여관찰시 생긴 의문사항들을 따로 기록한 현장일지와 연구자 수집, 계획안, 가정통신문 등을 참고로 하여 질문하였으며, 연구에 도움이 되는 유아들의 활동자료, 가정통신문, 보육일지, 교육계획안, 학급신문, 기관 안내서, 식단, 각종 공문이나 서류 등을 수집하고 검토하였다.

제3단계는 2008년 1월부터 2월 말까지로 그 동안의 관찰내용을 검토하면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관하여 주 1~2회의 선별관찰(selective observation)을 실시하였으며, 4월 말까지 필요할 때마다 유아들과의 자연스런 접촉으로 유아의 일과에 대한 해석을 확인하였다. 또한 앞 단계에서 수집된 자료와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 일지를 작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호한 자료나 면담내용이 있으면 기관을 재방문하여 확인하고, 일지를 연구 참여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연구자의 관찰과 기록 및 해석의 정확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에서 자료수집과 분석은 전통적인 연구방법과는 달리 직선적인 선후 관계로 이루어지는 분리된 과정이 아니라 순환적인 과정을 밟으므로 자료분석은 자료수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조용환, 1999). 본 연구에서 수집된 문서자료는 다음

과 같다. 먼저, 공식적 자료로는 보육시설을 소개하는 안내서 및 팸플렛, 홈페이지 자료, 교육과정 설명서, 소식지, 가정통신문 등을 비롯해서 노란반에서 진행되는 보육활동을 이해하기 위한 연간계획안, 주간계획안, 일일보육계획안, 학급신문, 입학원서, 보육시설의 각종 출판물 등을 참고하였다. 사적 자료로는 연구자가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 교사일지, 자체 연수회 자료, 교사 회의록, 부모들에게 전달되는 알람장, 아이들의 활동을 찍은 사진과 아이들의 작품, 교사가 제작한 교재 등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문서들은 어린이집의 운영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연구자가 유아의 일과 중 이루어지는 활동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자료분석은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단계는 서술관찰단계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위영역을 잡아 분석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첫 단계에서 드러난 영역을 중심으로 집중관찰, 심층면담 및 문서자료를 분석하여 영역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여기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각 영역에 맞는 내용을 일정한 틀의 흐름으로 재구성하는 분류분석의 단계를 거쳤다. 이 단계에서도 분류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집중관찰 및 심층면담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선별관찰, 심층면담, 문서자료의 분석을 통해 분류분석 단계에서 방만하게 구성된 틀을 더욱 좁혀 몇 개의 범주와 관련된 속성을 찾아 포괄적이면서 명료한 주제를 끌어내었다.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작업을 진행하였다. 첫째, 다원화(triangulation)를 통한 검증으로, 참여관찰, 면담, 문서수집 등 다양한 자료수집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해서 생길 수 있는 해석상의 판단 오류를 줄이고자 노력하였다(Guba &

Lincon, 1985). 둘째, 구성원 검토(member check)를 통해,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관찰 혹은 해석에 대한 검토를 받음으로써 자료의 의미와 분석에 대한 왜곡을 피하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동료 검토(peer examination)로, 연구자 이외에 참여관찰을 도운 보조 연구자 2인과 함께 코딩 범주를 분석해 나감으로써 연구자가 범할 수 있는 해석상의 오류를 줄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외부 감사(audit)를 통해, 본 연구와 관련이 없는 유아교육 전공자 1인에게 연구의 전체적인 과정과 결과에 대해 검토 받았다.

Ⅲ 어린이집 만5세 유아의 일과의 의미

만5세반 유아들의 일과를 분석해 본 결과, 등원 및 실내 자유선택활동, 정리정돈 및 오전 간식, 대·소집단 활동, 정리정돈 및 점심식사, 실내·외 자유놀이, 영어동화, 알람장·그림일기 쓰기 및, 1차 차량 유아 귀가, 정리정돈 및 특별활동, 2차 차량 유아 귀가 및 실내자유놀이, 오후 간식, 비디오 시청 및 3차 차량 유아 귀가의 순서로 일과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일과의 실체가 의미하는 바를 시간, 공간, 놀잇감의 측면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시간 : 정해진 시간에 따르는 하루

1) 할 일에 쫓기는 바쁜 유아

노란반 유아들의 일과는 매일 아침 어린이집 승합차 시간에 정확히 맞춰 양육자와 함께 미리 나와서 대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유아들은 어린이집에 오전에 등원해서 오후에 귀가할 때까지 정해진 시간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끊임없이 바쁘게 수행하는 모습이었다. 등원하자마자 한자나 속담적기, 자유선택활동, 오전 간식을 먹고 나면 바로 대·소집단 활동으로 생활주제에 관한 이야기나누기를 시작으로 미술활동, 요리활동, 음률활동, 동화 듣기 등의 활동들을 하고, 점심식사 이후에는 또 다시 알림장이나 그림일기 쓰기 및 영어동화와 특별활동 수업을 받느라 일정하고 정확하게 짜여진 시간대로 끊임없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 연구자 : (새로운 교재활동을 하고 있는 나주를 보고) 매일 이렇게 새로운 활동을 먼저 한 후 자유선택활동을 하니?
 나주 : (잠시 색칠하던 것을 멈추고 연구자를 보며) 예. 선생님이 새로 할 거 하라고 하면요. 지금은 새로운 거 선생님이 하라는 거 하는 시간이거든요. (다시 색칠을 하다가 연구자를 보며) 음... 근데 우리는 순서대로 하는 시간이 다 있거든요. 얼마나 바쁘네요.
 연구자 : 어떤 순서가 있는데?
 나주 : 아까 봤잖아요. 제일 먼저는 출석카드에 스티커 붙이는 시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한자 적는 시간이지요... 또 지금은 선생님이 하라는 것 해야 되는 시간이지요, 또 음~(옆에 앉은 소영이를 보며) 또 뭐 하는 시간이고?
 소영 : 표시하는 시간! 뭐하고 노는지.
 (2007. 10. 29. 유아면담)

즉, 노란반 유아들은 ‘~해야 하는 시간’에 따라 순서대로 움직이는데 이미 익숙해져 있으며, 교사가 제시한 활동들을 하는 시간은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과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교사가 제공하는 새로운 교재·교구 활동은 유아들에게 단지 교사가 하라고 한 것이기에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들은 현재 진행하던 활동들도 정해진 시간 내에 완성하지 못했을 경우 부득이 다음의 활동을 위해 급하게 서둘러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다음은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오전에 완성하지 못한 활동을 마무리 짓고 있는 유아들의 모습이다.

- 【소라는 교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난 후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소꿉놀이 영역으로 온다.】
 소라 : (혜진이를 보며) 내 지금 세계여러나라 국기 다 못 한 거 색칠 완성해야 된다.
 혜진 : 아침에 다 안 했나?
 소라 : 어. 내 아침에 잘못 색칠해가지고 다시 했었잖아. 지금 하기 싫은데. 빨리 하고 놀자.
 혜진 : 언제? 나중에 정리시간 되면 어찌노?
 가영 : (교사가 미완성된 작품을 모두 정리하는 것을 보며 안도하는 목소리로) 어휴 살았다. 나는 안 불렀다. (혜진이를 보며)우리 끼리 계속 놀고 있자.
 (2007. 11. 20. 참여관찰)

이처럼 노란반 유아들은 점심식사 후 친구들과 자유롭게 자유선택활동을 하다가도 교사가 다 못한 활동을 확인해서 하라고 지시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진행하던 놀이를 중단하고 교사가 시킨 대로 마무리 하지 못한 활동을 해야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유아들은 시작한 활동을 끝까지 마무리 지어 보는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상황은 유아들에게 갑자기 놀이를 중단해야 하는 당황스러움과 또 자신이 현재 원하지 않는 활동을 교사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해야만 하는 데서 오는 불만과 속상함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미완성한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한 유아들은 오전 대·소집단 활동이 끝나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도 끝까지 활동을 마무리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이는 정리정돈을 알리는 교사의 눈치를 보면서 지금 어떻게든 활동을 마무리 짓고 놀 수 있을 때 놀려고 하는 것이다.

노란반 유아들은 매일 시간에 맞춰 해야 할 일들을 해 내느라 쫓기는 분주한 일과를 보내는 과정에서 해야 할 일들에 밀려 놀 시간에 놀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을 접하게 된다. 정해진 시간에 해야 할 일들은 유아들에게 긴장과 부담을 안겨 준다. 즉, 활동의 의미를 이해하기보다는 제한된 시간 안에 완성시키는 데 목적을 두게 하며, 미처 완성을 하지 못했을 때는 다음의 놀 시간에 완성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2) 어린이집 수업하고 또 특별활동 공부하는 유아

노란반 유아들의 전체 하루 일과는 크게 아침에 등원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는 정규수업과정으로 표준보육과정에 근거한 생활주제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면서 보냈고, 그 이후부터는 요일별 시간표대로 운영되는 특별활동을 하면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들은 이러한 일과에 대해 정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정민이와 희숙이는 ‘오늘의 하루일과’ 카드를 떼고 붙이기를 반복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정민 : (바깥놀이 글자카드를 붙이면서 희숙이를 보며) 이거 다음부터는 “특별활동 공부하는 거” 글자 붙여야 되는데 카드 없제?

희숙 : (바구니에 담겨있는 카드를 뒤적거리면서) 어, ‘그냥 우리 어린이집에서 수업’하는 카드만 있고 영어나 한글 글자 카드는

여기에 없다.

정민 : 선생님이 안 만들었는갑다. 우리 같이 특별활동하는 것도 만들어달라고 할래?

(2007. 11. 8. 참여관찰)

이처럼 유아들은 매일 아침 등원해서 자유선택활동을 시작으로 대·소집단 활동으로 진행되는 이야기나누기를 비롯해서 미술활동, 요리활동, 음률활동, 동화듣기, 비디오 시청, 바깥놀이 등 표준보육과정에 의한 생활주제 중심의 보육과정은 ‘어린이집에서 그냥 하는 수업’이라고 하였고, 점심식사 이후에는 영어수업을 시작으로 요일별로 정해진 교재를 가지고 하는 특별활동은 ‘특별활동 공부’라고 표현하였다. 이것은 유아들의 생활, 즉 삶 전체를 배워가는 과정으로 보지 않고 ‘어린이집 수업’과 ‘특별활동 공부’라는 특별한 두 영역으로 떼어놓아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다. 다음은 특별활동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유아들의 모습이다.

【영호와 철민이는 언어영역 교구장 위 책꽂이에 꽂혀 있는 수학교재를 챙기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영호 : (수학교재를 꺼내며)니 수학 2번짜리 집에 들고 갔었나?

철민 : 아니. 아직 다 못했다. 그때 선생님이 오늘 수학 시간에 다 해라고 했는데, 니는?

영호 : 나도 뒤에 3장 더 남았다. 찬우는 다해서 집에 들고 갔다. 나는 오늘 다 해가지고 검사받으면 집에 가지고 갈 수 있다.

...(중략)...

철민 : 나는 이거 다 하고 영어 뮤지컬 하면 공부 끝났네?

영호 : 맞네. 나중에 고운반에 갈 때 또 같이 가자.
(2007. 11. 20. 참여관찰)

노란반 유아들의 특별활동은 대부분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순서에 따라서 또는 교사의 시범과 설명에 따라서 미리 준비되어있는 재료를 찾

아서 붙이고 꾸미고 오리는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과학이나 한글, 수학 특별활동시간에도 마찬가지였다. 이것은 교사가 유아들에게 자신이 지시하는 일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수시로 검사하고 확인해서 다시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에 따른 것으로, 유아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법이나 스스로의 선택보다는 교사에게 의존하여 교사가 시범을 보이고 시키는 대로 따라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교사는 유아의 스스로의 자율성을 통제하게 되고, 유아는 교사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르게 된다.

2. 공간 : 정해진 공간에서 보내는 하루

1) 주로 교실 안에서 노는 유아

노란반 유아들은 대부분의 일과를 교실 안의 정해진 공간을 이동하면서 보냈다. 그런 만큼 유아들이 공간에 부여하는 공간 질서는 매우 정교하였다. 교실 안에서의 유아들은 구분되어진 공간에 따라 움직이며, 정해진 자리에서 활동하는 등 사용하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었으며, 노란반 교실을 벗어날 경우에는 교사의 통제를 받거나 반드시 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유아들은 이러한 절차가 필요 없이 공식적으로 교사의 인정을 받으면서 장소를 이동할 수 있는 상황들인 즉, 도우미 친구가 되어서 간식이나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 1층 주방이나 화장실을 가는 경우, 교사의 심부름으로 다른 반 교실로 가는 경우, 영어특별활동을 하기 위해 다른 반 교실로 가는 것을 매우 좋아하였으며, 간혹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연구자 : (교사 심부름으로 1층 사무실에 서류를 가지러 간다고 동건이에게 자랑하는 영호에게) 선생님 심부름 하는 걸 좋아 하는구나.

동건 : (입을 삐죽거리면서) 그런 게 아니고요. 1층에 내려가니까 좋아서 저러는 거예요.

연구자 : (동건이와 영호를 보고) 1층으로 내려가는 게 좋아요?

영호 : 예. 그냥 여기 말고 다른 데 가니까요. 다른 반 동생도 보고. 1층에는 또 화장실도 예쁘거든요. 또 바깥놀이터도 볼 수 있고... 재미있잖아요.

(2007. 12. 4 유아면담)

이것은 매일 일과를 보내는 제한된 장소인 노란반 교실을 벗어나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보고자 하는 유아들의 욕구를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매일 보고 느끼는 것과는 다른 또 다른 공간에서 새롭고 다양한 것들을 보고 느끼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욕구를 가진 유아들 중에는 간혹 교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교실을 벗어나서 교사로부터 꾸중을 듣거나 벌을 서는 경우도 보였다. 자주 발생하는 예로는 정해져 있는 2층 노란반 교실 옆 화장실이 아닌 1층에 있는 화장실을 몰래 사용하고 오는 경우였다. 유아들은 교사가 시키고 허락할 경우 외에는 노란반 교실 안에서만 놀아야 하며, 이것이 규칙이며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아들은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하거나 이동하기보다는 교사의 지시에 따라 제한된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특히 이러한 모습은 유아들의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8개의 흥미영역 별로 정해져 있는 영역과 인원 수 등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에서 잘 나타났다.

【블럭영역에서 영호와 동건, 민승, 철민이 4명이 축구게임기를 만들고 있고, 은하와 미영이는 집짓기를 하고 있다. 가영이가 이름표를 가지고 블럭영역에 서서 친구들이 놀이하는 모습을 보

고 있다.】

동건 : (가영이를 보며) 6명 땡! 다른 데 가라
가영 : (동건이에게 눈을 흘기며) 그냥 보는 거
다. 보는 것도 안 되나?

(2007. 11. 22. 참여관찰)

이처럼 블록영역과 같이 자신이 흥미를 가지고 원하는 특정영역에 정해진 인원수로 인해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노란반 유아들은 자신이 선택한 놀이를 포기하거나 주변을 배회하기도 하고 다른 영역에서의 놀이를 하거나 이미 그 영역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 유아들과 서로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결국 각 영역별 인원을 정해서 통제함으로써 유아들이 공간에 제한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또래 관계에서도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경계를 하는 결과를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양옥승(2003)과 유혜령(1998), 김수정과 홍용희(2004)의 연구결과에서 밝힌 바와 같다.

한편, 노란반 유아들은 교실 내에서 교사가 사용하는 교사용 컴퓨터, TV 등의 기자재가 놓여 있는 교사책상이 있는 공간을 특히 ‘선생님 자리’로 인식하고 교사가 없을 때도 거의 근처에 잘 접근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은 교사의 공간과 유아들의 공간이 나뉘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유아들은 대집단 자리와 소집단 자리를 비롯해서 줄을 설 때도 번호대로 순서와 자리가 정해져 있으며, 이렇게 정해진 자리에 따라 움직이며, 간혹 자신의 자리에 다른 친구들이 앉았을 경우 자신의 자리임을 주장하며 비켜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였다.

【교사가 컴퓨터로 ‘사랑의 꿈’ 음악을 들려주면서 정리정돈 시간임을 알리자 각 영역에서 놀이를 하던 유아들은 정리정돈을 한 후 대집단 자리로 모여 앉는다.】

영미 : (언어영역에서 글자카드를 정리한 후 의자를 빼서 대집단 자리로 가서 자기 자리에 앉은 후 옆에 앉은 수지를 보고) 수지

야! 옆으로 좀 비켜줘. 여기 자리가 너무 좁다.

수지 : (의자를 옆으로 비키면서) 됐나? 이 옆에는 형민이 자린데?(교사가 조용히 음악 감상을 하자고 말하자 얼른 눈을 감는다)

(2008. 1. 11. 참여관찰)

노란반 유아들은 교실 안에서 전체적으로 대집단으로 모였다가 다시 소집단으로 흩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활동을 진행하였다. 즉, 대집단 자리에 전체 유아가 모여 앉아서 교사와 함께 생활주제에 따른 이야기나누기 수업을 하고, 이야기나누기가 끝나면, 또 다시 이어질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소집단으로 흩어졌다. 유아들은 대·소집단이 서로 바뀔 때를 비롯해서 간식이나 점심식사 전, 귀가 준비 등을 위해 교사가 이름을 불러줄 때까지 아빠다리에 손을 무릎에 한 뒤 눈을 감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한 자세는 다음 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의젓한 자세이며, 노란반 유아들은 이런 자세로 있을 때 교사가 가장 먼저 이름을 불러주며, 따라서 활동도 친구들 보다 먼저 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결국 이것은 교사가 다음의 활동을 질서 있게 준비하고 진행하기 위한 방법이긴 하지만, 자신의 이름이 가장 늦게 불려진 유아들에게는 속상한 마음과 교사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하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유아들끼리도 서로 경계하거나 감시하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노란반 유아들의 구획되고 통제된 교실 안 공간질서는 유아들이 자신의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다양한 공간을 선택하고 활용하고 이동하는 기회와 범위를 제한시킬 수 있다.

2) 바깥놀이를 더 하고 싶은 유아

노란반 유아들이 바깥놀이터에 나가는 주 횟수는 1~2회 정도이며, 시간은 주로 점심식사가

끝난 12시 40분쯤부터 영어동화가 이루어지기 10분 전 시간인 1시 20분까지 약 30분 정도 이루어졌다. 가끔 오후 귀가차량을 기다리면서 잠시 15분~20분 정도 바깥놀이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그 외에는 유아들이 등·하원시 어린이집 승합차에서 내리고 타기 전 잠시 바깥놀이터 마당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노란반 유아들에게 바깥놀이터는 충분히 마음껏 놀 수 있는 장소이기보다는 감질나게 놀거나, 잠시 거쳐가는 장소로 사용되므로 대부분 유아들은 바깥놀이터에서 마음껏 놀 수 있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것은 점심식사 때마다 바깥놀이터를 나가는데 대한 질문을 교사에게 하면서 바깥놀이를 하고 싶은 절실한 속내를 보이면서 이에 대한 교사의 반응에 매우 민감한 유아들의 모습에서 나타났다.

찬우 : (홍분된 목소리로 연구자를 보며) 우리 오늘 바깥놀이터 나가요!

연구자 : 아주 기분 좋은 것 같네? 바깥놀이가 그렇게 좋니?

찬우 : 당연하지요. 매일하면 더 좋은데 (옆에 있는 준석이를 보며) 맞게 준석아!

준석 : (연구자를 보며) 그래도 선생님이 나가도 된다고 하면 나갈 수 있어요.

연구자 : 선생님께서 정해주시는구나.

찬우 : 그럼요! 선생님이니깐. 근데 오늘 나간다고 해서 좋아요.

(2008. 1. 11. 유아면담)

이처럼 유아들은 바깥놀이터에 나가는 것에 대한 결정이 자신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교사의 권한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바깥놀이터에서 유아들은 복합놀이시설을 이용해서 놀거나, 모래삽, 물뿌리개, 장난감 자동차, 모래채, 플라스틱 소꿉놀이 도구 등을 가지고 모래놀이를 하기도 하고, 축구 공으로 축구를 하거나 비행기를 날리기도 하였

다. 가끔 바깥놀이터에 있는 동물사육장에 있는 닭과 토끼를 보면서 먹이를 던져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아들은 바깥놀이를 하는 도중 수시로 바깥놀이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으며, 바깥놀이에서 새로운 놀이를 시도하려고 할 때 그 놀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지 교사한테 묻거나 확인하였으며, 주어진 시간이 짧을 경우는 급하게 놀이를 진행하면서 너무 짧은 놀이시간에 대해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자 : (교사가 정리 안 한다고 큰 소리로 꾸중하자 마지못한 모습으로 모래삽과 플라스틱 컵을 정리하는 민기를 보고) 민기는 더 놀고 싶은가 보구나.

민기 : (속상한 듯한 표정으로) 예. 조금밖에 못 놀았는데... 밥을 늦게 먹어서. 근데 벌써 정리하라고 그러고...

연구자 : (모래삽을 주워주며) 다음에 또 나와서 놀면 되지. 어서 정리하자.

민기 : (화난 목소리로) 다음에 언제요? 또 못 놀아요! (2007. 10. 30. 유아면담)

이처럼 노란반 유아들은 바깥놀이시간이 너무 짧은 것에 대해 아쉬워하면서 빨리 정리하라는 교사의 말에 속상해 하거나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언제 또 다시 바깥놀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바깥놀이시간이 일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한 유아들의 불만과 충분한 시간 동안 놀지 못한 아쉬움에 대한 감정이 서로 얽혀 있는 것이다. 한편, 노란반 유아들 중에는 바깥놀이터에 나가서 놀고 싶지만 또 다시 금방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냥 교실에서 좀 더 노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유아들도 있었다.

교실 안에서의 활동과 바깥에서의 활동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어린이집 일과 계획의 기본 원리(Decker & Decker, 2004)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 바깥에서의 놀이는

매일 같은 장소에서 긴 하루를 보내는 유아들이 교실 밖의 개방된 공간에서 마음껏 움직이면서 자유롭게 놀아보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또 해소시켜 줄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유아들에게 바깥놀이터는 점심시간 이후에 잠시 동안 또는 등·하원시간에 잠시 동안 어린이집 승합차를 타고 내리기 위해 거쳐가는 장소로서 교실 안에서의 놀이의 연장이 되지 못하며, 하루 종일 교실 안에서 일과를 보냄으로써 바깥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배려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놀잇감 : 제공된 놀잇감을 가지고 노는 하루

1) 정해진 규칙대로 놀잇감을 가지고 노는 유아

노란반 유아들은 대부분의 일과를 교사가 제공한 각 영역의 놀잇감들을 규칙에 따라 가지고 놀면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가 제공한 놀잇감에 제시된 놀이규칙이나 교사가 시범을 보이고 제시한 순서와 방법을 충실히 따르려고 노력하였으며, 익숙하지 않은 놀잇감의 사용방법이나 규칙에 대해서는 자주 교사에게 묻거나 확인해 보면서 놀이를 진행하였다. 간혹 놀잇감을 규칙에 맞게 하지 않는 유아들 경우 또래들 사이에서 ‘반칙을 하는 친구’ 또는 ‘규칙을 지키지 않는 친구’로 인식되어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교사로 부터 꾸중이나 제재를 받기도 하였다.

【민지와 동주는 조작영역에서 새로운 교구인 ‘지구탐험’을 가지고 놀이를 한다.】

민지 : (동주가 세모로 생긴 주사위를 던지려고 하자) 반칙! 그건 숫자만 할 때 사용하는 거잖아! 아까 선생님이 가르쳐줬는데 그러노!

동주 : 아니다. 선생님한테 물어보자! (교사를 보며 큰 목소리로) 선생님! 이거 주사위

두 개 같이 던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민지 : (동주가 가지고 있는 게임판 뒷면을 보며) 여기에 규칙이 적혀 있잖아! 규칙대로 해야지! 자꾸 반칙하고 그러노?

(2008. 1. 25. 참여관찰)

한편, 노란반 유아들이 사용하는 놀잇감 종류는 자유선택활동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거나 제한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소꿉놀이영역에 비치되어 있는 싱크대 안의 다양한 종류의 그릇들, 조작영역에 크기가 작은 조각퍼즐, 블록영역의 작은 블록조각, 미술영역의 만들기 활동 등과 같이 복잡하거나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까다로운 놀잇감들은 자유선택활동시간이 5분~10분 정도 남았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노란반 유아들은 이미 일상적인 놀이규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은 노란반 유아들이 소꿉놀이의 싱크대 안에 있는 여러 종류의 그릇들을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

【수진이와 나주, 소라가 역할영역에서 소꿉놀이를 하는 도중 수진이가 찬장에 정리되어 있는 그릇들을 모두 꺼내기 시작한다.】

나주 : (수진이가 찬장에 들어있는 그릇과 컵들을 모두 바닥에 내려놓자) 수진아! 그거 꺼내서 놀아도 되는지 선생님한테 물어 봐야 된다.

소라 : 맞아. 이거는 선생님이 정리하기 힘들다고 시간이 많이 있을 때만 꺼내서 가지고 놀아라고 했는데? (2007. 11. 7. 참여관찰)

정해진 놀이규칙은 유아들이 놀잇감을 사용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기존에 제시된 놀이규칙과는 다르게 유아들이 스스로 새로운 놀이방법을 고안해서 적용할 경우에는 교사 뿐 아니라 또래 유아들에게도 수용되지 못하고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정해진 놀이방법과 순서에 따라서 정확하게 활동해야 한다는 교사와 유아의 인식은 간혹 유아들이 스스로 교구를 사용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교구를 활용해 보고자 하는 욕구를 제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2) 만들어진 놀잇감을 가지고 노는 유아

노란반 유아들이 일과를 보내면서 가지고 노는 놀잇감들은 대부분 인공물로 만들어진 것이다. 노란반 교실은 TV, 비디오, 컴퓨터, 빔 프로젝터, OHP 실물화상기, 카세트 등 전자제품들과 기자재, 합성섬유의 카펫과 커튼, 밝은 조명들이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또한 유아들이 가지고 노는 상품화된 놀잇감은 대부분 다양한 색깔의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만들어진 것이고, 교사가 직접 제작한 놀잇감은 우드락이나 하드보드지, 천, 칼라시트지, 셀로판테이프, 코팅지, 짝짝이, 부직포, 고무판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유아들 신체크기에 맞는 플라스틱 모형 썩크대와 식탁 등이 꾸며져 있는 역할영역과 함께 소꿉놀이영역은 작고 세밀한 정형화된 놀잇감이 많고, 썩크대 안에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그릇들과 생활주방용품 모형들이 잘 정돈되어 있다. 무엇보다 고무와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다양한 종류의 음식모형은 유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놀잇감으로 대부분 상차리기 놀이를 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다음은 소꿉놀이영역에서의 유아들의 모습이다.

【혜진이와 은하는 여러 가지의 음식모형 놀잇감을 그릇위에 놓고 상을 차리면서 아기 역할을 한 희수에게 밥을 먹으러 오라고 부른다.】

희수 : (달걀프라이 모양과 밥 모양의 음식모형을 손가락으로 먹는 시늉을 하며) 와! 맛있다. 냐냐냐.

혜진 : 아 참 맛이다!(은하를 보며) 은하야! 우리 생선도 있었잖아. 생선도 먹어야 되는데? 파란 색깔로 생긴 거. 길쭉하게 생긴 물고기 있잖아?

은하 : 저번에 선생님이 없어졌다고 그랬잖아. (속상한 말투로) 도대체 어디 간 건지.

희수 : (식탁 옆의 조그만 칼을 꺼내며) 야! 이게 생선이라고 하면 되잖아!

은하 : (큰 소리로) 야! 니 미쳤나? 칼이 어떻게 생선이고?

혜진 : (웃으면서) 진짜 희수 아기다.

(2008. 2. 12. 참여관찰)

이처럼 유아들은 플라스틱이나 고무재질로 된 예쁜 색깔의 정형화된 실물모형의 놀잇감에 흥미를 가지며, 이러한 놀잇감을 가지고 노는 데 익숙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실물모형 놀잇감이 분실되었을 경우 비록 놀이상황일지라도 유아들은 가상적 대체물 사용을 거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따라서 놀이를 계속 진행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유아들이 다양하고 실물과 비슷한 모형의 놀잇감을 가지고 노는 데 매우 익숙해져 있음과 놀이 중에도 실물모형과 다르게 생긴 대체물은 용납이 되지 않았으며, 실물모형 놀잇감의 여부에 따라 유아들의 놀이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명백한 기능을 가지며 정형화되고 구조화된 놀잇감은 유아들에게 가상의 주제를 지시하고 구속하는 경향이 있어 상상적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

한편, 노란반 유아들은 주로 대집단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나누기 시간과 동화 듣기, 새 노래 등을 배울 때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보거나 OHP 실물 화상기를 보면서 교사의 설명을 듣거나 활동을 하였다. 또한 오후에는 컴퓨터나 TV를 통해 만화 프로그램을 보거나 비디오를 보는 등 컴퓨터는 유아들에게 매우 친숙한 매체였다. 컴퓨터 영역에는 항상 주변에는 다음순서로 대기하고 있는 유아들이 있었으며, 가끔 교사가 유

아들에게 컴퓨터 영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강화로 제공할 정도로 컴퓨터 영역은 노란반 유아들에게 인기 있는 영역 중 하나이다. 다음은 컴퓨터 영역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 유아들의 모습이다.

【동건이가 숫자게임이 끝나자 영호는 얼른 자리를 바꿔 앉아서 ‘우리집을 찾아주세요’ 미로찾기 게임을 빠른 속도로 시작한다.】

동건 : (마우스를 움직여서 집 찾아가기를 선택하는 영호를 보며) 영호야! 저쪽으로 가서 눌러 봐라. 시시한 거 말고 다른 동물들도 더 많이 나온다. 아! 슈팅게임하고 싶다. 니 슈팅게임 해봤나?

영호 : (컴퓨터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마우스를 움직이며) 아니? 우리 집에는 아빠가 사주신 스트리트파이터 3탄 있다! 우리 반에도 있으면 좋겠는데.

...(중략)...

영호 : (한 게임이 끝나자 동건을 보며) 우리 이제 ‘모양요정’ 같이 할래?

동건 : 그림 그려서 색칠하는 거? 음... (잠시 생각을 하더니) 근데 그거 너무 빨리 끝나니까 차라리 새미과학놀이 할래? 실험하는 거 interessant! (2008. 1. 14. 참여관찰)

노란반 유아들은 컴퓨터를 작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CD의 종류별 활동에 대해서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었다. 특히 유아들은 2명씩 컴퓨터 활동을 하면서 서로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거나 정보를 서로 교환하기도 하면서 협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서로 알고 있는 것을 먼저 해 버리거나 컴퓨터 게임에 숙달된 유아들은 혼자서 게임을 하려고 하여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 유아들은 컴퓨터 영역에 비치된 교육용 CD 보다는 게임오락용 CD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며 교실에 게임오락용 CD가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간혹 집에서 게임기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교사가 모르게 친구들과

함께 가지고 놀다가 교사한테 들켜서 꾸중을 듣는 모습도 자주 보였다. 유아들이 집에서 재미있게 경험해 본 오락게임용 CD이나 게임기가 없는 것을 아쉬워하며, 결국 교사의 눈치를 보며 몰래 집에서 가져온 게임기를 가지고 놀다가 혼나는 상황은 보이지 않는 교사와 유아간의 긴장된 관계를 보여준다.

한편, 노란반 유아들은 바깥놀이터에서 놀이를 할 때, 모래놀이 영역과 물놀이 영역에서 주로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만들어진 놀이도구를 사용하여 놀이를 하였다. 대부분 유아들은 옷을 버리는 것에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며 물이나 모래도 직접 손으로 만지기보다는 모래놀이 도구나 물놀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편안해 하였다.

【유아들은 모래에 물을 넣고 놀이도구로 모래를 뒤적거리면서 놀이를 하고 있다.】

민지 : (물뿌리개로 모래에 물을 뿌리면서) 물 뿌린다. 비켜라. 옷 버릴라.

철민 : (물에 젖은 모래와 마른 모래를 서로 섞으면서) 이걸로 우리 공 만들래?

민지 : 더럽다. 손도 다 버리고... 선생님한테도 혼난다. 그냥 이걸로(모래삽) 할 거다.(모래삽으로 계속 모래를 뒤적거리다)

(2007. 10. 23. 참여관찰)

이러한 유아들의 모습은 우선 옷이나 양말, 신발이 더러워지거나 흙이나 물이 묻는 것에 대한 교사의 주의와 함께 스스로 옷을 버리지 않으려는 노력이며, 또한 모래와 흙을 손으로 직접 만지는 것에 대해 더럽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란반 유아들은 이미 교실 내에 배치되어 있는 교재·교구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로 그것에 흥미를 별로 느끼지 못하였고, 좀 더 새롭고 복잡하며,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게임기나 오락게임용 CD를 더 선호했다.

특히 모래나 흙을 직접 신체를 이용해 접해 보기 보다는 물놀이나 모래놀이를 도구를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접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즉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놀잇감을 사용하면서 노 것에 익숙해 있는 모습을 유아들의 일과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만5세 노란반 유아의 일과를 질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노란반 유아의 일과의 실체가 의미하는 바는 시간, 공간, 놀잇감의 측면에서 찾을 수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첫째, 정해진 시간에 따르는 하루, 둘째 정해진 공간에서 보내는 하루, 셋째 제공된 놀잇감을 가지고 노는 하루로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5세 유아들의 어린이집 일과에서 드러난 의미를 토대로 몇 가지 논의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시설의 일과는 영유아들의 요구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야 하며, 기본적으로 보육시설에서 장시간 보내는 유아들의 발달특성과 신체 리듬 및 심리적 상태를 고려하여 보육활동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여성가족부, 2007).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볼 때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실제적인 유아들의 일과는 자신들의 흥미나 자발적인 의도, 선택, 생활리듬 보다는 교사가 미리 작성한 수업계획안에 따라 정해진 분절된 시간과 통제된 공간 속에서 일방적인 교사의 수업진행에 전체적으로 똑같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시간마다 해야 할 일들을 하고 끊임없이 검사받고 확인받으며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결국 교사가 제시하는 삶의 방식에 수동적으

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일과는 아이들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교사도 힘들게 하고, 하루 종일 보육시설에서 지내는 교사와 유아에게도 즐거움과 상관없이 해야만 하는 힘든 일로 변하게 된다. 배움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세밀하게 짜여진 일과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해야 하는 많은 활동들은 유아들의 생활을 ‘노는 시간’, ‘배우는 시간’, ‘미술 시간’, ‘이야기나누기 시간’ 등으로 시간을 토막내고, 유아들을 바깥보다는 실내에 가두게 하고, 끝없이 제공되는 해야 되는 일들에 쫓기는 삶으로 이끌도록 만든다. Ounstein과 Behar(1995) 역시 미리 세밀하게 계획된 교사의 계획안에 시간과 장소, 교육목적 및 내용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아의 매일의 요구나 흥미에 맞추거나 융통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결국 교사와 유아라는 생명체가 생명의 결에 따라 자연의 순리와 이치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도록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며 유아교육의 본질과도 맞지 않는 것임을 반성해 볼 부분이다.

둘째, 영유아의 보호에 치중했던 보육에서 이제는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의 개념으로 변화되었다고는 하나 현재 어린이집에서의 유아들이 실제 경험하고 있는 교육에 있어서는 여전히 인지 중심 프로그램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것처럼 어린이집에서의 인지 프로그램은 영어, 한글, 수학, 한자 등 초등학교 교과목식으로 분절하여 가르치고 교사 주도의 특별활동을 제공하고 있었다. 특별활동은 기본적인 유치원 교육과정이나 표준보육과정 이외에 별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윤기영·권미경, 2004)으로, 유아교육기관 학

부모들의 교육열과 취업도 증가에 따른 종일제 교육의 확대와 맞물려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각종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윤기영·김경숙, 1993; 주지희, 1996; 우은희·전예와, 1998; 이순영 외, 2000)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들은 특히 스스로 노력하는 자율적인 인간을 기르고자 하는 것이 표준교육과정에서 궁극적인 목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상이라는 점에서 볼 때, 유아들의 자발성과 흥미를 고려하지 않는 교육과정은 유아들의 자발성이나 잠재능력이 소실될 뿐만 아니라 기계적이고 타율적인 태도를 강요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Richard와 Light(1986)는 유아가 교사의 질문에 대해 직접 자신이 생각하는 답이 아니라 교사가 요구하는 답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유아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흥미를 개발하는 과정을 무시하는 것으로써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며 행동 통제를 못하는 유아로 성장시킬 수도 있다는 것과 과연 이러한 교육이 유아들이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길로 가고 있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인지적 활동 중심에 맞물려 유아의 필수적인 실외활동의 기회와 여건이 취약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노란반 유아의 일과 대부분은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며, 구분되어진 공간에 따라 정해진 자리에서 활동하는 등 사용하는 공간이 제한되어있었다. 특히 바깥놀이터라는 공간은 잠시 대기 중에 놀 수 있는 장소로 자주 마음껏 놀 수 있는 장소이기보다는 바깥놀이 후 곧바로 이어질 다음의 활동이나 교사와 유아가 해야 할 일들로 인해 잠시 동안 감질나게 놀거나, 잠시 거쳐가는 장소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실외보다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

을 더 중요시하는 것은 공간과 자원의 부족도 있겠으나 실제로 실외놀이가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간과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유아에게 놀이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며 권리이지만 실외놀이공간에서의 자유로운 활동기회가 부족하거나 제한되었을 뿐 아니라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여건도 제한되어있는 현실을 볼 때, 유아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실외활동의 기회가 필요할 뿐 아니라 자연을 접하는 기회와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유아들은 생활주제별로 각 영역에 제공되어진 놀잇감을 정해진 사용방법과 규칙에 따라 놀이해야 하며, 이미 정형화된 인공물의 놀잇감을 가지고 놀기 때문에 스스로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바꾸거나 새로운 놀잇감을 선택하는 기회는 제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유아는 자신의 자유롭게 놀잇감을 선택하고 만들고 활용할 수 있을 때, 또한 주변의 환경을 직접 탐색하도록 격려될 때 관련된 지식, 기술 및 태도 등을 가장 잘 습득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07). 즉, 제공되어진 산업사회의 산물인 플라스틱보다는 자연과 식물, 폐품으로 정해진 규칙에 맞춰 놀이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찾아 만들고 다양하게 활용해 볼 때 비로소 유아 자신의 감각을 키울 수 있고 생태의 순환원리를 터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분위기나 가치관의 문제 때문도 있으나, 유아교육 연구자들이 아이들의 성장, 발달, 능력 개발을 통해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연구에 치중해 왔으며,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지식과 정보와 기능을 학습하고 가르치는 유아교육에 열중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계의 지향은 항상 아동중심, 경험중심이었다. 임재택(2003)은 이것은 바로 유아 및 인간에

대한 기본적 가정과 교육관이 일관성 있게 묶여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아동중심이라고 했으나 아동의 본성과 가능성에 대한 신뢰는 부족했고, 아이들이 스스로 잘 해내리라는 믿음보다는 염려가 더 커서 교사는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예상하고 준비한 다음 더 잘 교육하기 위해서 혹은 계획한 대로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개입하고 지도하려 한 것이 아닐까에 대해 반성해 볼 때다. 교사도, 학부모도, 사회도, 수업을 교사가 준비하고 주도해 주어야 한다는 고정관념과 강박의식을 버리고 계획된 보육과정과 실행된 보육과정은 다를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육과정에 대한 연구 및 논의는 계획과 실행 사이의 간극을 파악하면서 보육현장의 실재를 담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유아가 진정으로 원하는 아동중심, 놀이중심, 흥미 및 자발성에 기초한 유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목소리에 주목해야 할 것이며, 교사와 유아의 생명력을 함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분희 · 윤애희 · 이경희 · 정정옥(2007). 유치원 보육시설 운영관리. 서울 : 학지사.
 김수정 · 홍용희(2004). 유치원 자유선택활동 시간의 교사 역할 및 역할수행의 갈등. *교육인류학연구*, 7(2), 137-169.
 김영천(1998).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서울 : 교육과학사.
 김현정(2003). 우리나라 유아의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지영(2001). Merleau-ponty 현상학에 근거하여 본 유아 신체 경험의 교육적 의미.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문희 · 이 옥 · 백화중 · 박지혜 · 최진원(2005). *보육 · 교육 실태조사 총괄 보고*.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성부.
 서 현(2006). 유아 혼잣말의 현상학적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양옥승(2003). 자유선택활동에서 유아의 선택의 의미. *유아교육연구*, 23(3), 131-152.
 여성가족부(2007).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 보육내용 및 교사지침*.
 우은희 · 전예와(1998). 유치원의 종일제 프로그램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아동 · 가족복지연구*, 2, 121-135.
 유혜령(1998). 교수매체 환경과 유아의 경험양식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자유선택활동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18(1), 131-151.
 유혜령(1999). 소수민족 유아의 유치원 생활경험 : 현상학적 이해. *교육인류학연구*, 2(2), 139-169.
 윤기영 · 권민경(2004). 유치원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분석.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논총*, 9, 117-136.
 윤기영 · 김경숙(1993). 유치원 오후 연장프로그램의 기본방향. *유아교육연구*, 13(1), 151-170.
 이대근 · 송정원(2005). 유아교육기관의 운영관리. 경기 : 양서원.
 이민정(2002). 유아 음악활동의 의미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 *한국교육인류학회*, 5(2), 55-82.
 이연승 · 조미나(2005).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0(1), 41-67.
 이소은(2000). 유아의 일상활동과 자기 주도성 : 미국과 한국.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35-48.
 이소은 · 이완정(1997). 거주지 계층에 따른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아동의 활동분석. *아동학회지*, 18(1), 5-21.
 이순영 · 정미라 · 홍용희 · 엄정애(2000). 유치원 종일제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0(1), 59-79.
 이진원(2006). 보육시설 경험에 대한 아동의 인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성혜 · 손영수(2001). 유치원에서의 유아생활세계의

- 긴장과 갈등에 대한 해석학적 이해. 유아교육연구, 21(2), 85-109.
- 임재택(2003). 가르치지 않는 교육. 국제유아교육심포지엄 2003년도 자료집. pp.112-127. 10월 31일. 서울 : 이화여대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
- 정경애(2003). 동화구연 활동이 유아의 듣기 말하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선영(2002).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따른 보육프로그램 운영의 차이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지희(1996). 유치원의 종일제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금자 · 이혜영(2008). 보육교사의 전문성증진과 전문 인력의 확대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 52, 125-154.
- Armstrong, J., & Sugawara, A. (1989).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day care experiences. *Early Development and Care*, 49, 1-15.
- Belsky, J. (1988). The "effect" of infant day care reconsidered.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235-272.
- Decker, C. A., & Decker, J. R. (2004). *Planning and administering early childhood programs(8th ed.)*. NJ : Merrill-Prentice Hall.
- Godfrey, M. K., & Cemore, J. J. (2005). "Yeah. I Like It!" assessing what children think of child care. *Young Children*, 60(4), 86-93.
- Guba, E., & Lincoln, Y. (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 Press.
- Lee, S. (1994). Culture and preschoolers' activities : The United States and Korea. Unpublished doctor's thesi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Greensboro.
- Noddings, Nel. (2008). 시험도 숙제도 없는 행복한 학교 서머힐(김은산 역). 경기 : 양서원(원전발간일 1960년).
- Ounstein, A. C., & Behar, L. S. (1995). *Contemporary issues in curriculum*. MA : Allyn & Bacon.
- Richard. M., & Light. P. (1986). *Children of a social world*. Cambridge : Polity.
- Spradley, J. P. (1988). 문화탐구를 위한 참여관찰방법 (이희봉 역). 서울 : 대한교과서 주식회사(원전발간일 1980년).
- Wiltz, N. W., & Klein, E. (2001). "What do you do in child care?" Children's perceptions of high and low quality classroom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6(2), 209-236.

2009년 4월 30일 투고, 2009년 7월 3일 수정
2009년 7월 7일 채택